



남원 향교동,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남원시 향교동(동장 권혜정)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부근)에서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100가구에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1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삼계탕을 드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아울러 향교동에서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이불빨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김부근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열심히 봉사하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권혜정 동장은 직접 봉사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더운 여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생활 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등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복지 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송도축산 최지훈 대표, 정읍시에 고향사랑 기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송도축산의 최지훈 대표는 15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는 개인이 기부 가능한 최고한도로, 지역사회에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최 대표는 "평소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부금이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정읍 발전을 위해 응원해 주신 최지훈 대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기부금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정읍형 공유어린 이집 지원사업과 청소년 공작촌 운영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권역별 어린이집을 묶어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해 건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옥도 안창현 대표 등 고향사랑기부 이어져

김제시(시장 정성주)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기업인들의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옥도 안창현 대표이사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서울시티비레탄 김광진 이사장이 200만원을 기부했다.

안창현 대표이사와 김광진 이사장은 "김제시 경제발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실천한 안창현 대표이사와 김광진 이사장에 감사드리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김제 발전 및 김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김제가 아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2024년 사업으로 「차세대 어린이 인공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담배꽂이를 추가 선정해 지평선쌀 등 김제의 정성이 듬뿍 담긴 51개 품목의 다채로운 담배꽂이를 제공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절초꽃축제 만족도 'UP'

정읍시, 구절초꽃축제 만족도 위해 축제음식·제품 품평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10일과 11일 산내면종합체육센터에서 올 가을 열릴 제17회 구절초꽃축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음식·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는 식당, 푸드트럭, 특산물·먹거리판매장 등 전체 3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음식의 맛과 가격 △재료와 차별성 △서비스 마인드△참여의식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업선된 지역의 음식과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품평회에는 총 98개소의 마을과 단체, 업체 등이 참여해 구절초비빔밥, 생화탕퐁당 생계탕 등 각각2개의 음식과 특산물 먹거리 등을 전시하고 경쟁했다. 또 참여자들 간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축제 참여의식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심사위원들은 엄중한 심사를 통해 식당 13개소, 푸드트럭 7개소, 구절초상품판매장 3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식당 참가자들과 음식 가격 협의회를 거쳐 음식의 품질에 부합하는 최적의 가격결정을 협의, 8월 중 서비스 및 위생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전국적인 축제로 정착한 구절초 꽃축제가 맛있는 음식과 특색 있는 제품들로 다시 한번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7회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1일간 구절초 지방장원에서 개최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국기원장 표창 수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5일 우석대학교에서 진행된 '제22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이동섭 국기원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우석대학교 전국태권도대회는 겨루기, 격파, 품새 등의 경기가 펼쳐지는 대회로 대한태권도협회의 공인을 받은 대회로 2008년 첫 대회부터 지금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경기력과 규모를 선보이고 있다.

국기원장 표창장을 수상한 유의식 의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우리의 혼이 담긴 무예"라며 "민족의 혼이 깃든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수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무예로 널리 알려지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권도의 위상 강화와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태권도의 무한한 발전과 전변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수상소감에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군, 청소년 진로탐색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순창군이 최근 장애인체육관에서 제일고등학교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심리상담, 크리에이티브 청년농부, 여행전문가, 연극배우, 환경전문가 등 8명이 멘토가 되어 각각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교밴드의 음악 공연과 함께 완광대학교 김경배 교수가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무게를 안고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내가 세상의 주인 공'이라는 생각으로 멋진 꿈을 꾸고 희망의 내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행복하고 만족할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과 소원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순창의 희망이며, 미래다면서 '앞으로 순창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테니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생활 잘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국기원장 감사장 수상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15일 우석대학교에서 진행된 '제22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제22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공인을 받은 대회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겨루기, 격파, 품새 등의 실력을 선보이는 대회다.

국기원장으로 감사장을 수상한 심부건 의원은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무예로 단순히 체력을 기를 운동이 아닌 자 나와 타인을 지키는 운동"이라며 "태권도의 정신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로 군인을 배려하는 의정활동으로 더욱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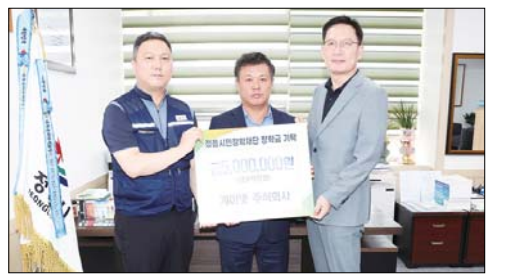


부안군산림조합,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수여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15일 대회의실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 14명과 만학도 대학생인 조합원 2명을 비롯, 총 1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조합원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 자녀들에게 사기진작은 물론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연대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세준 조합장은 "조합원 가정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케이넷 대표 등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재)정읍시민장학재단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케이넷(대표 서성남 오영석)은 지역 인재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케이넷은 고부면 소재 광계이불 보호관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기탁식에 참석한 오영석 대표는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정읍지대 또한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랑실은교통봉사대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40여명의 대원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 단체로, 2019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받은 장학금은 정읍의 미래를 이룰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도통동, 초복 찾아가는 소통행정 시원한 수박 전달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5일에는 수박 30통을 전달하는 1일 1가구 가정방문을 전개하고 있다.

방문 가정에 지원된 수박은 금요건설(대표 조규형)에서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물수박)로 기부받았다.

금요건설 조규형 대표는 "초복을 맞아 더운 날씨에 수박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소선자 동장은 "1일 1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수박을 전달하며 그들의 밝은 미소도 볼 수 있었다며, 금요건설의 기부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한 사례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헌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통동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동장과



직원들이 관내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 가정을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청 직원들, 수해복구에 팔 걷어

전북자치도 직원 80여명은 15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산·완주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복구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 직원들 40여 명이 지난 12일 완주군 운주면에서 토사물 제거, 폐기물 처리 등 피해복구 지원을 한 데 이어, 이날은 직원 80여 명이 군산시 나포면, 완주군 운주면 일대의 침수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군산시 나포면과 완주군 운주면은 집중 호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 등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유호연 전북자치도 총무과장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복구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 침수 복구지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국장 김광수) 직원 30여 명은 15일 호우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일손을 보탬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폭우로 범람한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 인근에 위치해 집 안까지 비와 진흙이 들어오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복구·정리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상황을 몸소 체감한 직원들은 침수된 주택 내 가재도구를 세척하고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등 복구작업에 힘을 모았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피해로 상심이 클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드리하고자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며, "주택 피해 지원뿐 아니라 폭우로 유실된 도로 및 배수시설 등을 신속히 정비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